

# 예순 넷에 개척한 지상파 LBS 서비스



한국위치정보(주)  
대표이사  
곽치영

어떠한 사업이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회경험이 쌓여갈수록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사회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반드시 사회로 환원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경험이 지식이라면 여생을 강의나 집필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기업이라면 힘 닿을 때까지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야 한다.

지난 2005년 사회안전정보망을 표방한 한국위치정보를 설립해 올해 서비스를 시작하기까지 내가 겪었던 건, 업무에 대한 어려움 보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다시 기업을 시작하는 나를 지켜보는 우려에 찬 시선이 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준 건 우리나라 IT 산업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기업과 당당하게 협상하여 지상파 LBS(Location Based Service)장비와 단말기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부터 한국형 지상파 LBS 기술을 자체 개발해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지나면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Homing Device)를 국산화 했으며 12월에는 한국형 차량 단말기도 개발했다. 또한 조만간 기지국도 국산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지난해 말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앞질러 개인 휴대용 위치정보 단말기 개발에 성공해 올해 초부터 '마이폴'이란 이름으로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이폴'은 기존 위성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고층건물이 밀집한 시내지역에서 오차 반경이 크고 실내로 들어갈 경우 사실상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파 LB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여기에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Homing Device)를 사용하면 1미터 이내의 위치추적도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처럼 세계 최초의 개인 휴대용 위치정보 단말기로 이제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선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공보다 더욱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역설적인 말도 있다. 망설이고 있다면 새해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회사는 2008년까지 지상파 LBS용 칩(SoC: System on Chip)을 개발하여 세계 위치정보 시장을 주도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위치추적 전용 칩이 개발되면 영화에서나 보던 정밀한 위치 추적을 현실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하거나 몸에 부착하는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가능해 지상파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상파 LBS망을 이용한 사회안전정보망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첨단 기반 기술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로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나라 IT산업의  
역량과 가능성으로  
일군 지상파 LBS망  
개발과 상용화